



“품질은 얼굴, 안전은 품행”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행복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

취재/글 현천일 기자 safehc@safety.or.kr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이하 하동화력본부)는 2011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 중 하나로 떠올랐다. 허나 이곳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현장위주의 안전관리, 안전경영시스템 확립, 소방방재시스템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해 올해 역시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전년도 수상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는 동시에 명실 공히 항구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돼 있음을 대내외에 명백히 알린 것이다.

이처럼 하동화력본부가 우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노사가 일체가 되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노사화합’은 안전과 더불어 하동화력본부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 2012년도 노사문화우수 기업 공공기관 부문에 선정됐을 정도다. 끈끈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안전사업장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곳, 근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행복발전소라고 불리는 곳. 경남 하동에 위치한 하동화력본부를 찾아가 봤다.

선진 안전문화 정착의 견인차

Global Energy STAR(Smart work, Target market, Advanced technology, Relationship)! 하동화력. 이는 하동화력본부의 비전으로, 흔들림 없는 안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다.

하동화력본부의 목표는 국내 일등이 아니다. 이곳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꿈꾼다. 위의 비전은 바로 이런 하동화력본부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은 안정적 설비운영, 전문역량 강화, 원칙과 기본 중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인간존중의 안전문화 정착’ 등 5개 경영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안전문화의 정착’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해선 우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부터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 경영진의 신념이다.

이에 따라 하동화력본부의 경영진은 안전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현장순회를 통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솔선수범은 전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은 크게 저장, 연소, 회전, 발전, 송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보일러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얻은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 터빈을 회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면 연동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만큼 각 공정마다 위험요소도 상당하다. 석탄 취급 설비의 화재위험, 고층설비인 보일러에서의 추락위험, 변압기 설비의 감전위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곳의 경우 원료인 석탄을 옥외저탄장에 저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발화 등 화재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이곳은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먼저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물 분무소화설비, 방풍림 등 방재장치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고층설비에는 안전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감전 및 화재예방이 높은 고압케이블에는 난연성 도료코팅을 추가 보강하는 등 재해예방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은 자율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매년 각종 비상대응 가상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사 동반 안전 워크숍 등도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발전소 주변 지역의 재해·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복지서비스, 지역 밀착형 안전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한편 유년시절부터 안전의식 체득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소방 어린이 교실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안전은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한국남부발전(주)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했다. 2011년에는 KSR인증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으로 전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하동화력을 포함한 5개 사업장에서 국제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HSAMS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단순히 설비의 설치나 안전 활동의 전개가 아닌 시스템의 구축으로 선진 안전관리체계를 완성시킨 것이다.

이곳 안전관리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로는 '협력사와의 공조'를 들 수 있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협업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수행하는 각종 정비 및 안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 개선을 해주고 있다. 즉 협력사 종사자 및 소속 직원들 또한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지 않는 안전 열정

이곳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신 작업안전 시스템(안전 전문가가 작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제도)'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내년부터 섹터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 모든 작업에 대해 사전 검토에서부터 종결까지 안전전문가에 의해 통제 되는 작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존 분산되어 있는 소방감시시스템을 통합 감시하는 소방방재센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에 있다. 즉 이중감시체제로 강화하여 소방설비 고장발생시 신속하게 파악하고, 화재수신반 및 CCTV를 통합 감시함으로써 상황관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하동화력분부는 굳건한 안전문화에 기반을 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이들이 선보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



미니 인터뷰



김경철 본부장

“안전은 기업경영에 있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전은 기업경영에 있어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또한 밥을 먹고 호흡을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안전관리가 아닙니다. 늘 긴장하고 생각하며, 끝없는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을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관리입니다.

더불어 관리자는 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안전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자의 관심과 투자가 병행될 때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품질-얼굴, 안전-품행'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자신의 얼굴에 책임 있게 행동할 때 그 자긍심이 품행으로 나타나듯, 안전 역시 기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